

# 제18장

## 가금류 수급 동향 및 전망

이형우\*·김서영\*\*·김형진\*\*\*·임호빈\*\*\*\*

### 1. 산란계

- 1.1. HPAI 발생 동향
- 1.2. 산란계 사육과 계란 수급 동향
- 1.3. 산란계 사육과 계란 수급 전망

### 2. 육계

- 2.1. 육계 사육과 닭고기 수급 동향
- 2.2. 육계 사육과 닭고기 수급 전망

### 3. 오리

- 3.1. 오리 사육과 오리고기 수급 동향
- 3.2. 오리 사육과 오리고기 수급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lhw0906@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ksy1208@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junjang00@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hyobin@krei.re.kr

## 요약

### 1) 산란계

- 2021년 평균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HPAI 발생으로 2020년(7,354만 마리) 대비 7.7% 감소한 6,785만 마리로 추정된다. 2021년 평균 계란 산지가격은 가정 내 계란 수요가 늘고 생산량이 감소하여 2020년(1,106원) 대비 62.5% 상승한 특란 10개 기준 1,797원이었다.
- 2022년 3월 기준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종계 및 실용계 병아리 입식 증가로 2021년 3월(6,211만 마리) 대비 19.4% 증가한 7,418만 마리로 전망된다.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사육 마릿수가 늘어 2021년 대비 15.4% 증가한 4,594만 개로 전망된다.
- 2022년 평균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2021년(6,785만 마리) 대비 9.1% 증가한 7,401만 마리로 전망된다. 2022년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사육 마릿수가 늘어 2021년(4,192만 개) 대비 9.1% 증가한 4,575만 개로 전망된다. 2022년 평균 계란 산지가격은 생산량 증가로 2021년(1,797원) 대비 30.3% 하락한 특란 10개 기준 1,252원으로 전망된다.

### 2) 육계

- 2021년 육계 사육 마릿수는 HPAI 발생으로 종계 사육이 줄어 2020년(9,756만 마리) 대비 1.0% 감소한 9,659만 마리였다. 사육 마릿수 감소로 2021년 도계 마릿수는 2020년(10억 7천만 마리) 대비 3.3% 감소한 10억 4천만 마리였다. 이에 따라 생계유통가격은 2020년(1,118원/kg) 대비 26.8% 상승한 1,421원/kg이었다.
- 2022년 닭고기 생산량은 도계 마릿수 감소로 2021년(62만 9천 톤) 대비 1.3% 증가한 63만 7천 톤으로 전망된다. 닭고기 생산 증가로 2022년 생체 kg당 육계 산지가격(생계유통가격)은 2021년(1,421원) 대비 3.5% 하락한 1,372원으로 전망된다.

### 3) 오리

- 2021년 평균 오리 사육 마릿수는 HPAI 발생으로 전년(868만 마리) 및 평년(876만 마리) 대비 각각 24.4%, 25.2% 감소한 656만 마리로 추정된다. 2021년 평균 오리 산지가격은 도압 마릿수 감소와 냉동재고 부족으로 전년(5,603원) 및 평년(6,069원) 대비 각각 78.7%, 65.0% 상승한 생체 3.5kg당 1만 원이었다.
- 2022년 평균 오리 사육 마릿수는 HPAI 피해가 컸던 전년(655만 마리) 및 평년(802만 마리) 대비 각각 23.1%, 0.5% 증가한 807만 마리로 전망된다. 2022년 오리고기 생산량은 오리 사육 마릿수가 늘어 2021년(9만 6천 톤) 및 평년(10만 9천 톤)보다 각각 19.8%, 5.5% 증가한 11만 5천 톤으로 전망된다. 2022년 오리 산지 가격은 육용오리 사육 마릿수 증가 영향으로 2021년 대비 하락한 생체 3.5kg당 8,000원 내외로 전망된다.



## 1.1. HPAI 발생 동향

- 2020년 11월 26일 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가 발생하였다.
  - HPAI는 이듬해 4월 7일까지 지속되었으며, 농장 확진은 109건이었다. 이중 산란계는 46건, 육계·토종닭 4건, 육용종계 5건, 오리 48건, 그 외 6건이었다.
  - 전체 가금류의 약 15%인 2,825만 마리가 살처분되었으며, 이중 산란계는 1,696만 마리(산란계 전체 사육 마릿수의 23.4%), 육계·토종닭은 787만 마리(7.8%), 종계는 135만 마리(14.8%), 오리는 206만 마리(26.0%)였다.
- 이후 2021년 11월 8일 충북 음성 메추리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재발하였다.
  - 이번 HPAI 첫 발생은 '20/21년 HPAI 첫 발생일('20.11.26.) 대비 18일 빨랐으나, 첫 발생일로부터 2022년 1월 6일 까지 발생 건수는 '20/21년(47건) 대비 57.4% 감소한 20건이며, 살처분 마릿수는 85.4% 감소한 185만 마리(전체 가금류의 1.0%)이다.
  - 이 중 산란계는 138만 마리(1.9%), 육계·토종닭 24만 마리(0.3%), 오리 23만 마리(3.1%)가 살처분되었다.

[ 표 18-1 ] HPAI 발생 상황 비교

구분	첫 발생일	HPAI 발생 건수 (1월 6일 기준)	살처분 마릿수 (1월 6일 기준)
'21/22년 HPAI	'21.11.8.	20건	185만 마리
'20/21년 HPAI	'20.11.26.	47건	1,271만 마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표 18-2 ] '21/22년 HPAI 발생 이후 가금류 살처분 마릿수

단위: 만 마리, %

구분	산란계	육계, 토종닭	종계	오리	기타 (메추리 등)	합계 (기타 제외)
살처분 마릿수	138	24	0	23	77	185
(사육 마릿수 대비 비중)	1.9	0.3	0.0	3.1	5.4	1.0

주 1) 살처분 마릿수는 1월 6일 24시 기준임.

2) 전체 사육 마릿수는 2021년 9월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기준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1.2. 산란계 사육과 계란 수급 동향

### 1.2.1. 산란계 사육 동향

- 2021년 산란계 평균 사육 마릿수는 전년(7,354만 마리) 및 평년(7,069만 마리) 대비 각각 7.7%, 4.0% 감소한 6,785만 마리였다.
  - '20/21년 HPAI 발생으로 산란계 1,696만 마리가 살처분되어 사육 마릿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 6개월령 이상 사육 마릿수는 4,970만 마리로 전년 및 평년 대비 8.7%, 6.9% 감소하였으며, 3개월 미만 사육 마릿수는 943만 마리로 전년 및 평년 대비 0.9%, 0.5% 감소하였다. 3~6개월 미만 사육 마릿수는 872만 마리로 전년 대비 9.2% 감소하였으나, 평년 대비 12.8% 증가하였다.
- 2021년 산란계 평균 사육 가구수는 878호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7.2%, 11.5% 감소하였다. 가구당 평균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2.8% 감소하였으나, 평년 대비 8.2% 증가한 7만 6천 마리였다.

[ 표 18-3 ] 산란계 사육 마릿수 변화

단위: 만 마리, 호, %

구분	2021년(p)	2020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총 마릿수	6,785	7,354	7,069	-7.7	-4.0
6개월 이상	4,970	5,443	5,340	-8.7	-6.9
3~6개월 미만	872	960	774	-9.2	12.8
3개월 미만	943	951	948	-0.9	-0.5
사육 가구수	878	947	992	-7.2	-11.5
가구당 사육 마릿수	7.6	7.8	7.0	-2.8	8.2

주 1) 사육 마릿수는 3월, 6월, 9월, 12월 1일자 평균이며, 2021년 12월 사육 마릿수는 KREI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2) 평년은 2016~2020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 1.2.2. 계란 수급 동향

- 2021년 계란 생산량은 산란계 사육 마릿수 감소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0.0%, 2.8% 감소한 65만 톤이었다. 1인당 소비가능량은 계란 생산량이 줄어 전년 대비 5.3% 감소한 13.3kg이었다.

[ 표 18-4 ] 계란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kg, %

구분	2021년(p)	2020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국내 생산	650.1	722.3	668.7	-10.0	-2.8
1인당 소비가능량	13.3	14.0	13.0	-5.3	1.8

주: 2021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21년 신선란(조란에 포함) 및 계란 가공품 수입량은 전년(3,609톤) 및 평년(3,770톤)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3만 5,778톤으로 추정된다. '20/21년 HPAI 발생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여 수입량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공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예년(1% 미만) 대비 증가한 5.2%였다.

[ 표 18-5 ] 계란 가공품 수입통관 실적

단위: 천 달러, 톤, %

구분		2021년(p)	2020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총수입	금액	116,882	13,596	13,685	759.7	754.1
	수입량	35,778	3,609	3,770	891.4	849.0
조란	금액	97,338	416	1,460	23,309.7	6,567.4
	수입량	30,279	54	791	55,764.4	3,726.3
난백	금액	10,520	8,479	8,109	24.1	29.7
	수입량	2,683	2,137	1,513	25.6	77.3
난황	금액	9,025	4,702	5,590	91.9	61.4
	수입량	2,817	1,418	1,583	98.7	78.0

주: 2021년 12월은 KREI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자료: aT 「농식품수출정보」

- HPAI 발생 여파로 계란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급 안정을 위해 2021년 1월부터 10개월 동안 신선란 2만 3,725톤이 수입되었다. 신선란은 HPAI 피해가 컸던 지난 2017년에 수입되었고 이후 3년간(2018~2020년)은 국내 계란 생산량이 증가하여 수입되지 않았다.
  - 신선란은 미국(95.8%), 태국(4.0%), 스페인(0.2%)에서 수입되었다.

[ 표 18-6 ] 2021년 신선란 수입현황

단위: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합계
미국	102	1,729	1,384	1,422	2,567	3,027	3,147	4,254	3,516	1,578	22,726
태국	-	56	224	112	96	186	213	52	18	-	955
스페인	-	0	-	44	-	-	-	-	-	-	44
합계	102	1,786	1,608	1,577	2,663	3,213	3,360	4,306	3,534	1,578	23,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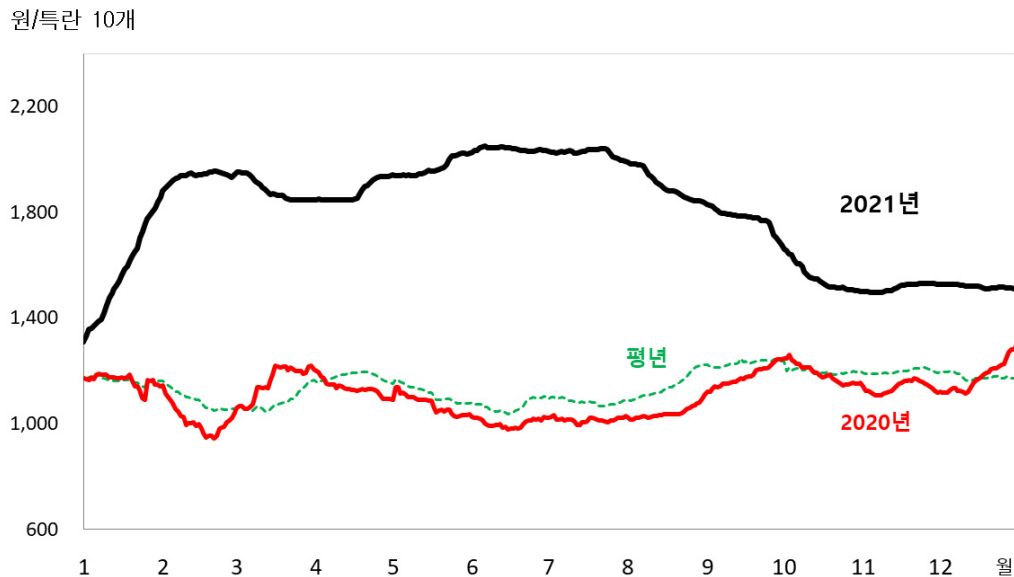
주: 신선란 HS-CODE는 0407-21-0000임.  
 자료: 관세청



### 1.2.3. 계란 가격 동향

- 2021년 평균 계란 산지가격은 특란 10개 기준 전년(1,106원) 및 평년(1,068원) 대비 각각 62.5%, 68.2% 상승한 1,797원이었다.
  - 계란 산지가격은 코로나19 발생으로 가정 내 계란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20/21년 HPAI 발생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여 전년 및 평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 이후 계란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8월 이후 본격 하락세를 보였다. 11월 상순 1,497원까지 하락하였으나, HPAI 재발생('21.11.8.)으로 소폭 상승하여, 현재('22년 1월 중순) 1,520원 대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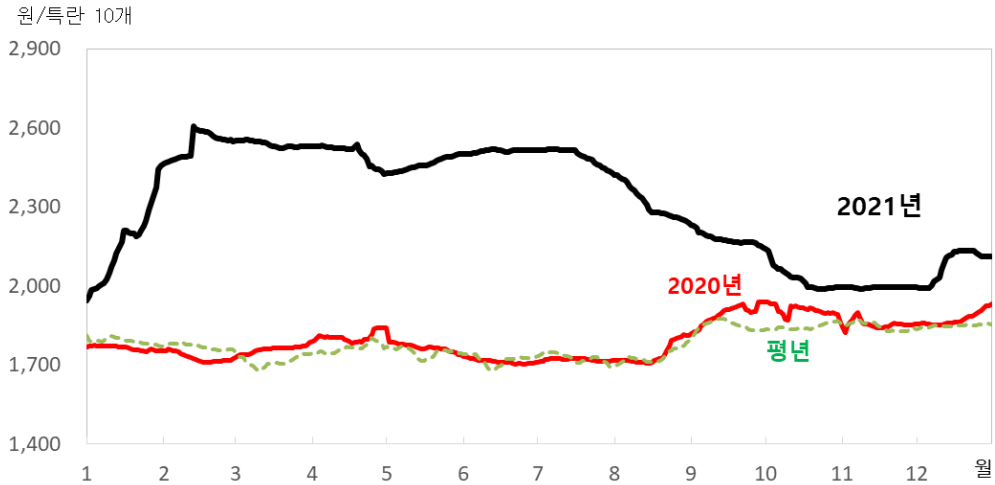
그림 18-1. 계란 산지가격 동향



주: 농협중앙회의 가격 조사 중단으로 2019~21년 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가격임.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품질평가원(5일 이동평균가격)

- 2021년 계란 평균 소비자가격은 산지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1,794원) 및 평년(1,779원) 대비 각각 29.1%, 30.2% 상승한 특란 10개 기준 2,317원이었다.
  - 2021년 하반기 평균 계란 소비자가격은 산지가격 하락으로 상반기 대비 11.0% 낮은 2,182원이었다. 추석 이후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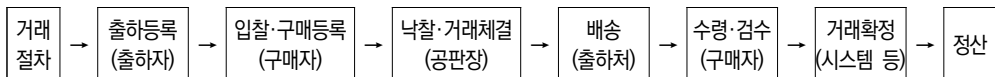
그림 18-2. 계란 소비자가격 동향



자료: aT 「농산물 유통정보」

## □ 2021년 12월 20일 계란 공판장 거래 개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계란공판장 도입을 '18년부터 추진하여 '21년 12월 20일 첫 공판장 거래를 개시하였다.
  - 계란 공판장은 농가와 계란 수집주체 간 거래 시 투명하고 객관적인 계란 가격지표 제공 및 불합리한 산지거래구조(일명‘후장기 거래방식’)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계란 공판장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입찰과 정가·수의매매방식을 병행한다.
  - 공판장 개설자: (주)해밀(경기 여주), 포천축산업협동조합
  - 거래방식: 온·오프라인에서 팔레트\*(최소출하단위) 단위로 입찰방식(최고가 낙찰)과 정가·수의매매방식(협의가격)을 병행하여 거래
    - \* 팔레트 1개는 360판(10,800개), 480판(14,400개)으로 구성
  - 거래시간: 입찰거래는 1회/일(14~15시), 정가거래는 주간 운영(9~18시)
  - 거래수수료: 상장수수료율 2%(온라인거래 0.6%)



## 1.2.4. 계란 소비 패턴

- 2022년 1월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조사(1/4~5) 결과<sup>1)</sup>, 2020년 11월 26일 HPAI 발생 이후 계란 소비가 이전 보다 ‘증가’한 소비자는 9.3%, ‘감소’한 소비자는 8.5% 였으며, 계란 소비량이 ‘변화없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82.7% 이었다.
  - 계란 소비가 ‘증가’한 이유는 ‘국산 가금산물의 안전성을 신뢰하기 때문에’(41.9%), ‘맛이 좋아서’(39.5%), ‘가격 상승(공급 부족) 대비 사전 확보 차원에서’(11.6%) 등으로 나타났다.
  - 계란 소비가 ‘감소’한 이유는 ‘HPAI 발생으로 인한 식품 안전성 우려 때문에’(50.0%), ‘가격이 상승해서’(35.7%), ‘다른 육류(음식) 선호하기 때문’(11.9%)이었다.

그림 18-3. HPAI 이후 계란 구매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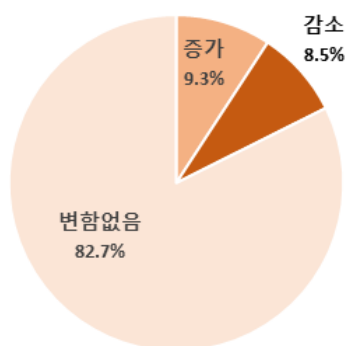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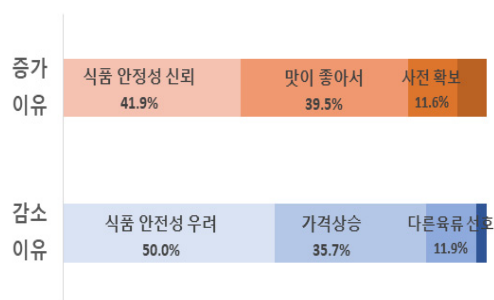


그림 18-4. HPAI 이후 계란 구매 변화 이유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 2021년 가정 내 계란 소비가 2020년 대비 ‘늘었다’는 소비자는 50.9%로, ‘줄었다’(8.7%)고 응답한 소비자 보다 많았다.
  - 계란 소비를 늘린 이유는 ‘손쉽게 구입하고 요리할 수 있어서’(54.0%), ‘단백질 등 영양이 풍부해서’(40.0%), ‘맛있어서’(2.4%), ‘가격이 저렴해서’(2.0%) 순이었다.
- 2022년 가정 내 계란 소비를 2021년보다 ‘늘리겠다’는 응답은 36.4%로 ‘줄이겠다’(3.0%) 보다 많았으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는 60.6% 이었다.

1) 2022년 1월 4~5일(2일간)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5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계란 소비를 늘리려는 이유는 ‘손쉽게 구입하고 요리할 수 있어서’(39.3%), ‘영양이 풍부해서’(28.7%), ‘가정 내 소비 빈도 증가’(26.4%) 순이었다.

[ 표 18-7 ] 소비자의 계란 구매량 및 구매의향 변화

단위: 명, %

구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가	253(50.9)	179(36.4)
변동 없음	201(40.4)	298(60.6)
전년 대비 감소	43(8.7)	15(3.0)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 소비자들이 계란 구매시 고려하는 주요 요인은 ‘신선도’(32.6%), ‘가격’(28.7%), ‘정부 인증마크’(17.1%), ‘품질등급’(9.4%) 순이다.
- 신선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주로 ‘유통기한 또는 산란일자’(46.3%)로 신선도를 판단하며, ‘외관상태’(20.8%), ‘냉장유통’(20.5%) 등을 확인하였다.

그림 18-5. 계란 구매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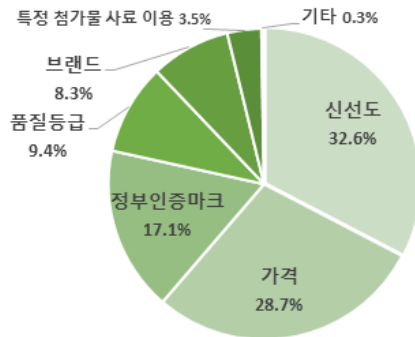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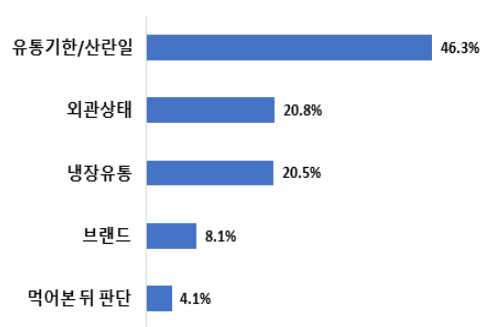


그림 18-6. 계란 신선도 판단 기준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 소비자들은 계란을 구입하기 위해 대형마트(48.0%)를 가장 많이 이용하며, 그 외 SSM<sup>2)</sup>(33.3%), 온라인(8.4%), 전통시장(5.7%)을 이용하였다.

2) SSM(Super Supermarket)은 대규모 유통 기업에서 체인 형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을 지칭함.

- 2021년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을 통한 구매 비중은 91.3%로 2020년(93.5%) 대비 2.2%p 감소하였으나, 온라인 구매 비중은 8.4%로 2020년(6.3%) 대비 2.1%p 증가하였다.
- 소비자들은 계란을 주로 30개 판란 단위로 구매(77.6%)하며, 소포장은 15개(10.5%), 10개(5.8%), 20개(5.4%) 순으로 구매하였다.

그림 18-7. 계란 구입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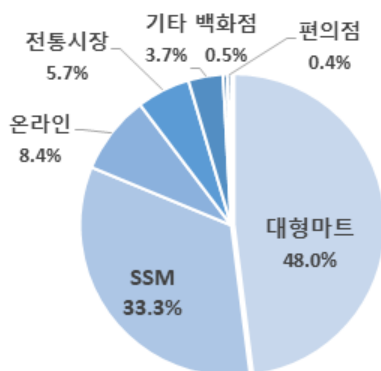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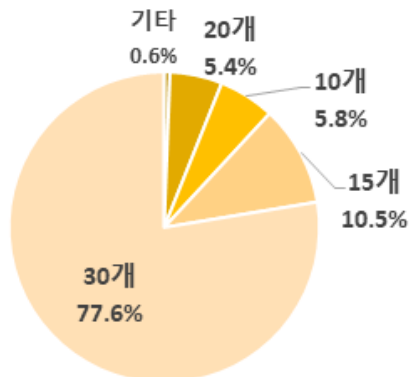


그림 18-8. 계란 구입 단위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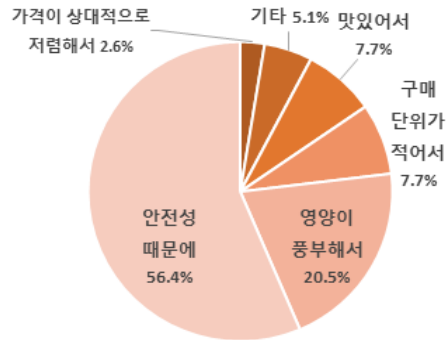
- 2021년에 계란을 구입한 소비자 중 67.6%가 인증란<sup>3)</sup>을 구입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이 구입한 계란 중 67.3%가 인증란이었다.
- 인증란을 구입하는 소비자 비중은 2020년(64.5%) 대비 2.8%p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 인증란을 구입하지 않은 소비자가 2021년에 인증란을 구입한 이유는 ‘안전성 때문에’(56.4%), ‘영양이 풍부해서’(20.5%), ‘구매 단위가 적어서’(7.7%), ‘맛있어서’(7.7%)이었다.

3) 인증란은 유기농, 무항생제, 동물복지 유정란 등 정부의 인증마크를 받은 계란을 지칭함.

그림 18-9. 인증란 구입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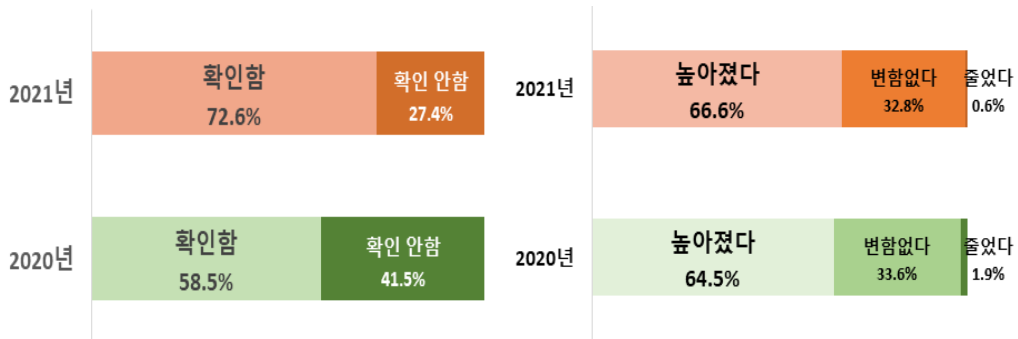
그림 18-10. 인증란 구입 이유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 산란일자 표시제<sup>4)</sup> 시행 이후, 2021년에 계란을 구입한 소비자의 72.6%가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있으며, 산란일자를 확인하는 소비자의 비중은 2020년(58.5%) 대비 14.1%p 증가하였다.
-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이후, 계란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시행 전보다 ‘높아졌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66.6%였으며, 2020년(64.5%) 대비 2.1%p 증가하였다.
  - ‘변함없다’(32.8%), ‘줄었다’(0.6%)고 응답한 소비자 비중은 2020년 대비 감소하여 산란일자 표시제는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8-11. 계란 구매시 산란일자 확인 비중 및 계란 안전성 신뢰도 변화 여부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4) 계란 산란일자 표시제는 2019년 6개월 계도기간(2.23일~8.23일)을 거쳐 2019년 8월 23일에 본격 시행되었음.

### 1.3. 산란계 사육과 계란 수급 전망

- (2022년 전망) 2022년 3월 기준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HPAI 발생으로 살처분 피해가 컸던 2021년 대비 19.4%, 평년 대비 9.3% 증가한 7,418만 마리로 전망된다.
  - 2022년 산란계 분기별 사육 마릿수는 종계 및 실용계 입식 증가로 7,400만 마리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2년 3월 기준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사육 마릿수가 늘어 2021년 대비 15.4%, 평년 대비 10.5% 증가한 4,594만 개로 전망된다.
  - 최근 산란율을 적용하였을 때, 2022년 평균 계란 생산량은 1일 기준 4,575만 개로 평년 (4,308만 개) 대비 6.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12월에는 평년 대비 3.9% 증가한 4,651만 개로 전망되어 공급과잉이 우려된다.

[ 표 18-8 ] 2022년 산란계 사육 및 계란 생산 전망

단위: 만 마리, 만 개, %

구분		2022년	2021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총 마릿수	3월	7,418	6,211	6,785	19.4	9.3
	6월	7,360	6,587	6,811	11.7	8.1
	9월	7,423	7,072	7,095	5.0	4.6
	12월	7,403	7,270	7,270	1.8	1.8
	평균	7,401	6,785	6,990	9.1	5.9
일평균 계란 생산량	3월	4,594	3,982	4,158	15.4	10.5
	6월	4,503	4,056	4,220	11.0	6.7
	9월	4,554	4,329	4,378	5.2	4.0
	12월	4,651	4,402	4,474	5.6	3.9
	평균	4,575	4,192	4,308	9.1	6.2

주 1) 평년은 2017~2021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2) 총 마릿수와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매월 1일 기준임.

3) 2022년 산란율은 2021년(3월 86.4%, 6월 83.7%, 9월 83.6%), 2020년 12월 84.8%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1년 산란 종계 입식 마릿수는 2020년(66만 마리) 대비 8.0% 증가한 71만 마리로 추정된다.
- '21년 1월 산란 종계 약 19만 마리가 살처분되어 사육 마릿수가 감소하였으나, 종계 입식을 늘리고 생산주령을 연장하여 실용계 입식 마릿수는 증가하였다.
- 2021년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 마릿수는 2020년(4,329만 마리) 및 평년(4,604만 마리) 대비 12.6%, 5.9% 증가한 4,873만 마리였다.

그림 18-12. 산란 종계 입식 마릿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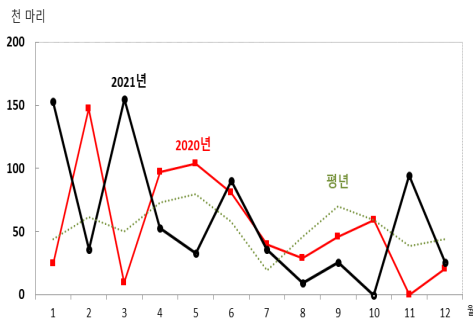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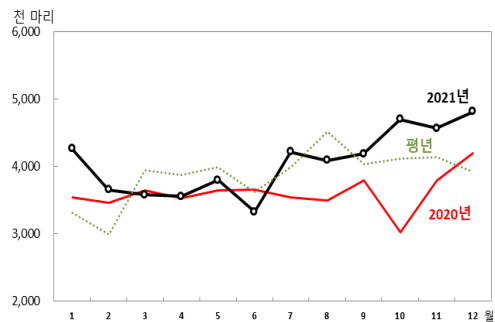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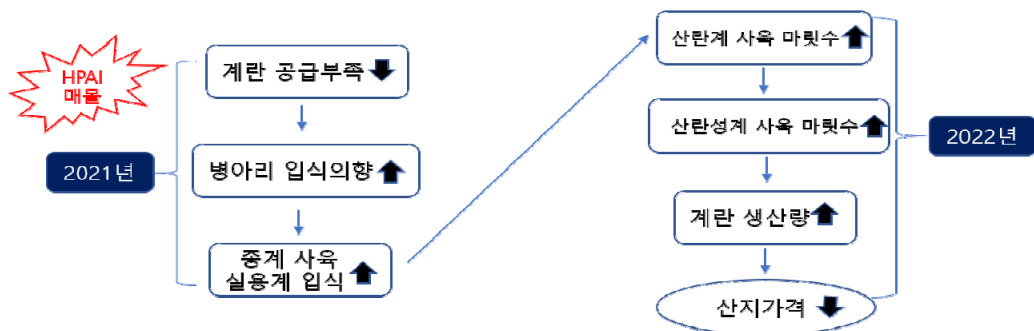
그림 18-13. 산란 실용계 입식 마릿수 추이



주: 12월 산란 종계 입식 마릿수는 잠정치임.  
자료: 대한양계협회

- 현재(1월 6일 24시)까지 살처분된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체 사육의 약 1.9% 수준인 138만 마리이다. 방역정책 개선으로 이전과 같은 대량 살처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이번 HPAI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8-14. 2022년 산란계 사육 및 계란 가격 전망 흐름도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 (장기 전망)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계란 소비 증가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부터 산란계 사육밀도가 조정( $0.05\text{m}^2/\text{마리} \rightarrow 0.075\text{m}^2/\text{마리}$ )되므로 시행 2년 전부터는 사육 마릿수 증가 추세가 둔화되어 2026년 7,473만 마리, 2031년 7,665만 마리로 전망된다.
-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2026년 4,701만 개, 2031년 4,827만 개로 예상되며, 1인당 계란 소비가능량은 2026년 14.3kg, 2031년 14.8kg으로 전망된다.

[ 표 18-9 ] 계란 수급 및 가격 전망

구 분	단위	평년	2021년	전망		
				2022년	2026년	2031년
사육 마릿수	만 마리	6,990	6,785	7,401	7,473	7,665
일평균 계란 생산량	만 개	4,308	4,192	4,575	4,701	4,827
1인당 소비가능량	kg	12.9	13.3	14.0	14.3	14.8
계란 산지가격	원/특란 10개	1,256	1,797	1,252	1,374	1,477

주 1) 사육 마릿수는 분기별 평균치임.

2) 평년은 2017~2021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3) 2021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21)

## 02

## 육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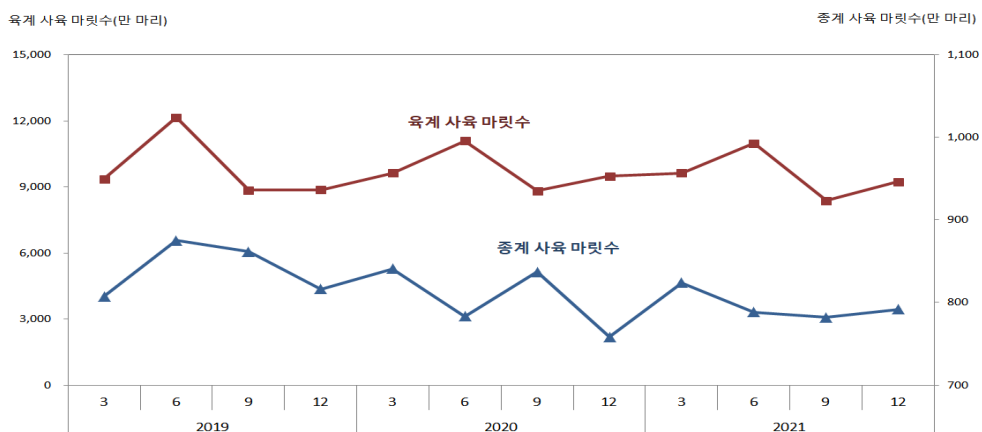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2.1. 육계 사육과 닭고기 수급 동향

## 2.1.1. 육계 사육 동향

- 2021년 육용 종계(Parental Stock, PS) 평균 사육 마릿수는 2020년 11월에 발생한 HPAI 영향에 따른 살처분과 종계 입식 감소로 2020년(811만 마리) 대비 2.6% 감소한 790만 마리로 추정된다. 이 중 육성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338만 마리) 대비 4.8% 감소한 322만 마리, 성계는 전년(472만 마리) 대비 1.0% 감소한 468만 마리로 추정된다.
- 2021년 육용 종계 병아리 입식 마릿수는 2020년(729만 마리) 대비 3.7% 감소한 701만 마리였다.

그림 18-15. 육용 종계 및 육계 사육 동향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KREI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 2021년 평균 육계 사육 마릿수는 육용 종계 및 육계 살처분으로 2020년(9,756만 마리) 대비 1.0% 감소한 9,659만 마리였다.
  - 2021년 가구당 사육 마릿수는 HPAI 발생으로 인한 사육 마릿수 감소 영향으로 2020년 대비 감소한 5만 8천 마리였다.
- 육계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생산지수는 2020년 338.7에서 2021년 337.7로 소폭 낮아졌다. HPAI 발생으로 인한 출하 제한으로 출하일령은 전년보다 늦춰졌고, 출하 체중은 증가하였다. 육성률은 증가하였으며, 사료요구량은 전년과 비슷하였다.

[ 표 18-10 ] 육계 생산성 변화

구분	육성률(%)	출하일령(일)	출하체중(kg)	사료요구량(kg)	생산지수
2021년(A)	97.5	32.8	1.72	1.515	337.7
2020년(B)	97.4	32.2	1.69	1.513	338.7
전년 대비(A/B,%)	2.1	1.9	1.0	0.1	-0.3

주: 생산지수=(육성률×출하체중)/(출하일령×사료요구량)×100 임.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

## 2.1.2. 닭고기 수급 동향

- 2021년 도계 마릿수는 육계 사육 마릿수 감소로 2020년(10억 7천만 마리) 대비 3.3% 감소한 10억 4천만 마리, 국내산 닭고기 생산량은 2020년 대비 2.1% 감소한 62만 9천 톤으로 추정된다.
  - HPAI 발생으로 인한 육계와 토종닭 살처분으로 1~2월 도계 마릿수는 전년 대비 평균 10.5% 감소하였다. 그러나 종계 생산이 연장되고 중량 미달의 병아리까지 입식되면서 3월 도계 마릿수는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9월까지 도계 마릿수는 종계 살처분과 하반기 공급과잉 우려에 따른 조기도태 등으로 인한 병아리 생산 감소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 10월 도계 마릿수는 금년 1~4월 집중 입식된 종계가 병아리 생산에 가담하며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급격한 기온하락으로 출하가 지연되며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11~12월에는 10월 출하 지연과 병아리 생산 증가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 2021년 닭고기 수입량은 국제 가격 상승, 세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선적 지연 등으로 2020년 대비 10.5% 감소한 12만 4천 톤이었다.
  - 우리나라 수입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산 수입량은 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닭고기 공급 및 선적이 지연되어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 브라질산 닭고기 이외에도 태국산과 덴마크산 닭고기가 주로 수입되는데, 덴마크는 현지 HPAI 발생으로 국내로의 수입이 중단되었다(2020.11.17.). 반면 태국산 닭고기는 지리적 이점 등으로 덴마크산 닭고기를 대체하며 전년 대비 94.0% 증가하였다.
- 2021년 닭고기 수출량은 국내 산란노계 도태 감소로 냉동 닭고기(베트남) 수출이 감소하여 2020년 대비 29.9% 적은 3만 6천 톤으로 추정된다. 다만 삼계탕(미국, 일본, 홍콩) 수출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 2021년 닭고기 자급률은 국내 생산량 감소로 2020년 대비 낮은 86.9%였으며, 닭고기 1인당 소비가능량은 14.7kg으로 추정된다.

[ 표 18-11 ] 닭고기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

구분		2021년(p)	2020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공급	이월	10.3	9.9	7.5	4.0	37.3
	생산	629.0	642.5	613.1	-2.1	2.6
	수입	124.0	138.5	122.7	-10.5	1.1
	계	763.3	790.9	743.3	-3.5	2.7
수요	소비	724.0	729.7	702.4	-0.8	3.1
	수출	35.7	50.9	33.5	-29.9	6.6
	재고	3.6	10.3	7.4	-65.0	-51.4
	계	763.3	790.9	743.3	-3.5	2.7
자급률(%)		86.9	88.0	92.7	-1.3	-6.3
1인당 소비가능량(kg)		14.7	14.9	14.3	-1.3	2.8

주 1) 2021년은 KREI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2) 자급률 = 국내 생산 ÷ 총 소비량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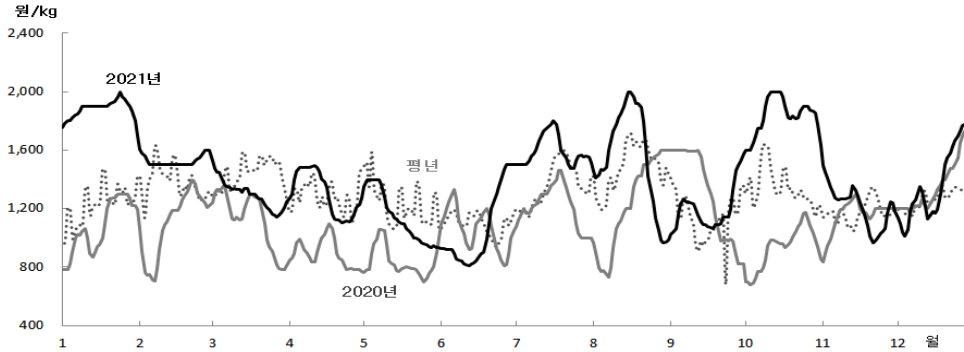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1.3. 가격 동향

- 2021년 육용 병아리 평균 가격은 병아리 생산 부족으로 2020년(338원) 대비 45.4% 높은 마리당 492원이었다.
  - HPAI 살처분으로 인한 종계 사육 마릿수 감소와 계열업체별 병아리 수급 불균형으로 1~3월 병아리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717원이었다. 이후에도 병아리 생산 부족이 지속되며 병아리 공급과잉이었던 전년 대비 높은 가격을 유지하였다. 12월에는 HPAI 발생 영향으로 가격이 높았던 전년보다는 낮게 형성되었다.
- 2021년 평균 생계유통가격<sup>5)</sup>은 도계 마릿수 감소로 2020년(1,121원/kg) 대비 27.1% 상승한 kg당 1,421원이었다. 그러나 도계 마릿수와 닭고기 소비 증감으로 가격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다.
  - 2021년 1~2월 평균 생계유통가격은 전년 대비 52.9% 상승한 kg당 1,708원이었다. 이는 종계와 육계 살처분으로 인한 도계 마릿수 감소와 더불어 계열업체별 닭고기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생계구매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3월 이후 도계 감소폭이 축소되고 닭고기 소비가 부진해지며 생계유통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다. 5월에는 생산비 수준(2020년 기준 1,215원/kg)보다 낮은 1,097원까지 하락하였다.
  - 7~8월 여름 복 성수기 생계유통가격은 도계 마릿수 감소와 스포츠 행사(도쿄올림픽), 무더위로 인한 소비 증가로 전년보다 32.9% 상승하였으나, 말복(8.11) 이후 소비 감소로 9월까지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10월에는 기온 하락으로 출하가 지연되며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전년 대비 88.6% 상승한 1,841원을 기록하였다.
  - 11월 생계유통가격은 도계 마릿수 증가로 전월에 비해 하락하였으며, 12월에는 도계 마릿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닭고기 소비 부진으로 전년 대비 낮은 1,395원이었다.

5)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발표하는 육계산지가격은 생계유통가격과 위탁생계가격으로 구분됨. 생계유통가격(출하물량의 3.3%, 2019 축산물 유통실태 기준)은 계열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농가가 산단 형태로 거래하는 가격이며, 위탁생계가격(출하물량의 96.7%)은 계열업체에 소속된 농가의 생계 납품 가격임.

그림 18-16. 생계유통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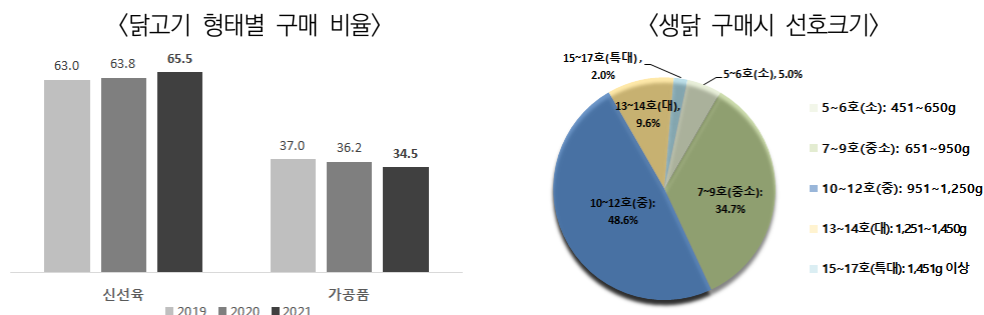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5일 이동평균가격)

#### 2.1.4. 닭고기 소비 패턴

-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2021년 닭고기 소비가 ‘늘었다’(47.5%)는 응답이 ‘줄었다’(13.0%)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닭고기 소비를 늘린 이유는 ‘배달 등 구입이 편해서’(6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맛있어서’(16.9%), ‘건강을 생각해서’(9.2%), ‘저렴해서’(7.7%) 순으로 조사되었다.
- 2021년 소비자들은 신선육 구매 비율은 65.5%, 가공제품 구매 비율은 34.5%로 나타났다. 신선육 구매 비율은 밀키트<sup>6)</sup> 판매 및 가정 내 간편 조리 기구 보급 확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 비해 1.7%p 증가하였다.
  - 소비자들은 생닭 구매 시 선호하는 크기는 ‘중닭(951~1,250g)’이 전체 응답 중 48.6%를 차지하였으며, 이어 ‘중소닭(651~950g)’이 34.7%, ‘대닭(1,251~1,450g)’이 9.6% 순이었다.
- 닭고기 가공제품 구입 형태는 ‘치킨 및 훈제구이’(43.2%), ‘즉석조리 제품’(19.2%), ‘레토르트 제품’(14.1%), ‘냉동 닭고기 식품’(13.3%), ‘닭가슴살 가공품’(10.2%) 순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 대비 치킨 및 훈제구이, 즉석조리 제품, 닭가슴살 가공품, 냉동 닭고기 식품의 구매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6) 밀키트(Meal Kit)는 손질된 식재료와 요리에 필요한 양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봉된 조리법대로 직접 요리하여 섭취하는 제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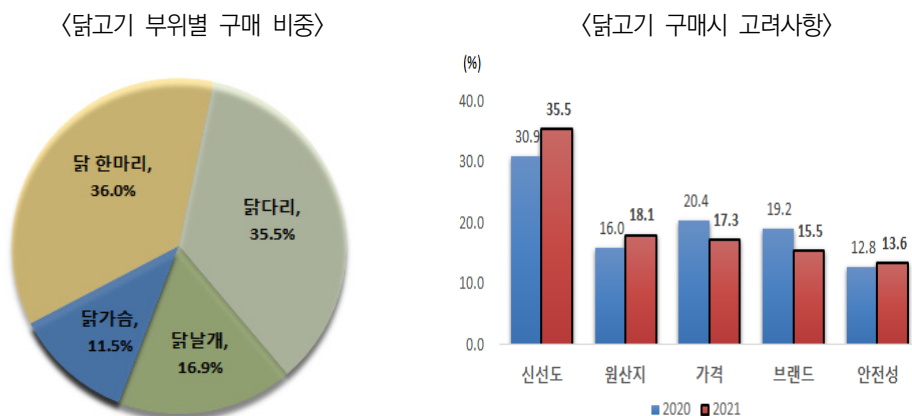
그림 18-17. 닭고기 구매 형태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 소비자가 구매한 닭고기 부위별 비중은 ‘닭 한 마리’(36.0%), ‘닭다리’(35.5%), ‘닭날개’(16.9%), ‘닭가슴살’(11.5%)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닭 한 마리 비중은 감소하였고 부분육 구매 비중은 증가하였다.
  - 지난 2020년 부위별 구매 비중은 ‘닭 한 마리’(42.7%), ‘닭다리’(35.6%), ‘닭날개’(13.9%), ‘닭가슴살’(7.1%) 순이었다.
- 소비자들은 닭고기를 선택할 때 ‘신선도’(35.5%)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다음으로 ‘원산지’(18.1%), ‘가격’(17.3%), ‘브랜드’(15.5%), ‘안전성’(13.6%) 순으로 나타났다. ‘신선도’, ‘원산지’, ‘안전성’에 대한 응답 비중은 2020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가격’, ‘브랜드’는 감소하였다.

그림 18-18. 닭고기 구매 형태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 2022년 닭고기 소비 의향 조사 결과, 2021년 대비 1.8%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닭고기 소비를 늘리려는 이유로는 ‘타 육류에 비해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41.0%), ‘건강을 생각해서’ (21.8%), ‘맛있기 때문에’ (20.5%), ‘가격이 저렴해서’ (12.2%) 순으로 조사되었다.
  - 닭고기 소비를 줄이려는 이유로는 ‘육류 소비를 지양하려고’(32.0%), ‘가격이 비싸서’ (29.3%), ‘다른 육류 소비를 늘리려고’(18.7%), ‘닭고기 안전성 우려’(17.3%), ‘맛이 없기 때문에’ (2.7%) 순으로 조사되었다.

## 2.2. 육계 사육과 닭고기 수급 전망

### 2.2.1. 닭고기 교역 여건 전망

- 2022년 수입 닭고기 도매원가는 환율이 상승하나, 수입단가 하락으로 2021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2년 브라질산 닭고기 도매원가는 kg당 2,496원, 미국산 3,279원, 덴마크산 2,313원으로 전망된다.

[ 표 18-12 ] 수입 닭고기 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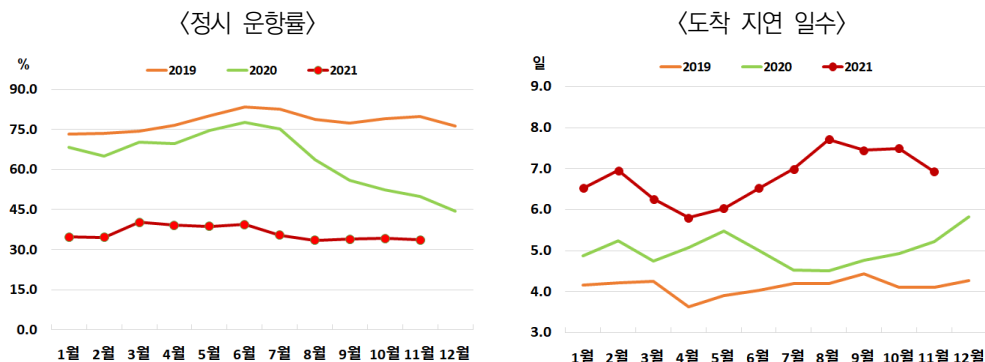
구분	2021년		전망		
			2022년	2026년	2031년
환율(원/US\$)	1,140		1,169	1,160	1,147
수입단가 (\$/kg)	브라질	1.69	1.64	1.70	1.67
	미 국	2.62	2.55	2.63	2.59
	덴마크	1.80	1.75	1.81	1.78
관세율 (%)	브라질	20.0	20.0	20.0	20.0
	미 국	0.0	0.0	0.0	0.0
	덴마크	4.3	2.9	0.0	0.0
도매원가 (원/kg)	브라질	2,503	2,496	2,559	2,492
	미 국	3,287	3,279	3,361	3,273
	덴마크	2,348	2,313	2,310	2,250

주: 도매원가는 국제가격에 환율, 관세, 부대비용과 수입업자 이윤 등을 포함한 가격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I-KASMO 2021)



- 2021년 이후에는 닭고기 수입단가와 환율 변동에 따라 국내 도매원가도 2031년까지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1년 미국산 닭고기 수입관세가 완전 철폐되었으며, 덴마크산 닭고기는 2024년에 완전 철폐된다. 2031년 미국산과 덴마크산 닭고기의 도매원가가 kg당 각각 3,273원, 2,250원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관세 유지 및 수입단가 상승으로 kg당 2,492원으로 예상된다.
- 2022년 주요국의 수입단가 하락과 EU산 닭고기 관세의 추가 인하는 국내 닭고기 수입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2022년 국내 닭고기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브라질과 미국에서는 항만 노동력 확보가 어렵고, 컨테이너 물류대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태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닭고기 생산 및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덴마크에서는 HPAI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된 상황이다.
- 더불어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인하여 컨테이너선 정시운항률 저하와 도착 지연 등 2022년 닭고기 수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 2021년 컨테이너선 정시 운항률은 2020년(65.8%)에 비해 낮은 36.1%로 나타났으며,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42.0%p 하락한 수치이다.
  - 도착 지연 일수는 정시 운항률 하락과 물류대란으로 2020년(5.0일) 대비 1.8일 늦은 6.8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는 2.7일 지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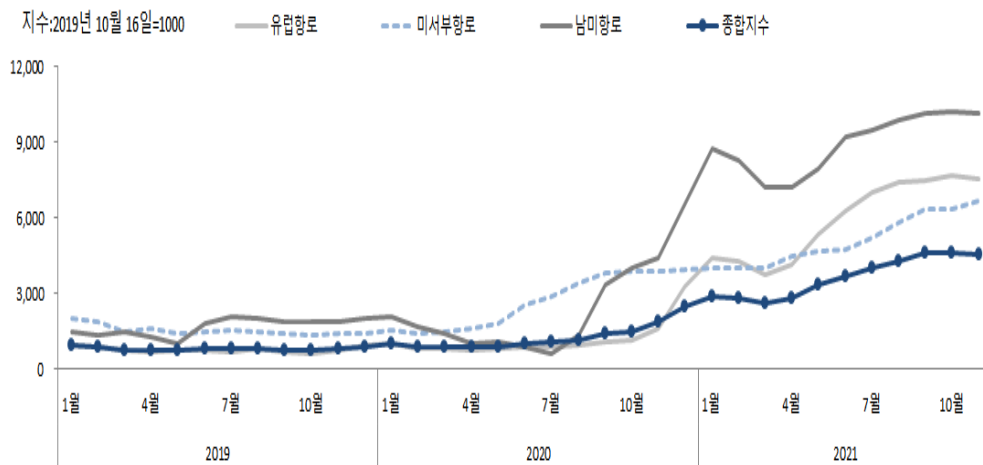
그림 18-19. 정시 운항률 및 도착 지연 일수



자료: Sea-Intelligence('21.12.27.)

- 또한 2021년 컨테이너 운임이 크게 상승하여 주요 수입국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2년 수입단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컨테이너 운임 상승분을 고려하면 수입단가 및 수입닭고기의 도매원가는 2021년에 비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21년 컨테이너 운임 종합지수는 2020년(1,243) 대비 195% 상승한 3,665로 나타났다. 국내로 수입되는 주요 노선인 남미 항로는 전년 대비 276.9%, 미서부 항로 90.3%, 유럽 항로 407.3% 상승하였다.

그림 18-20. 컨테이너 운임지수



주: 상하이발 컨테이너선 주요 15개 노선에 대한 운임을 지수화한 것임.  
 자료: 코리아쉬핑가제트, Shanghai Shipping Exchange

## 2.2.2.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 2021년 육용 원종계(Grand Parental Stock, GPS) 수입은 2020년(17만 1천 마리) 대비 2.7% 증가한 17만 5천 마리였으며, 주 수입 대상국은 미국, 영국이었다. 2020년 원종계 수입 감소로 2021년 육용 원종계 평균 사육 마릿수는 2020년(24만 3천 마리) 대비 11.1% 감소한 21만 6천 마리이며, 이 중 산란에 가담한 계군은 약 13만 8천 마리로 추정된다.

[ 표 18-13 ] 원종계 수입 현황(D-Line 기준)

단위: 천 마리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21년	18.7	20.8	10.4	10.4	0	25.0	18.7	31.2	15.0	0	25.0	0	175
2020년	20.8	0	25.0	0	26.0	0	18.7	31.2	22.9	0	26.0	0	171
2019년	0	22.9	0	20.0	0	43.7	20.8	26.0	0	0	26.0	41.6	201

주: 원종계는 종계 부계 생산을 위한 A(수), B(암)라인, 종계 모계 생산을 위한 C(수), D(암) 라인 형태로 수입됨.  
자료: 대한양계협회

- 지난 2018~19년 원종계 수입 기준 약 15%를 차지하던 코브(Cobb-vantress) 품종이 2020~21년 아바에이커(Arbor Acres)로 전환되며, 종란 생산수와 부화율 등이 높아져 병아리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 아바에이커는 코브에 비해 종란 생산은 30개 많고, 부화율은 4.7%p 높아 병아리 생산이 38마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육용 종계 품종 전환으로 병아리 생산이 증가하여 동일 종계 사육 마릿수에서 더 많은 병아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아바에이커 병아리 생산능력과 과거 코브 비중을 고려할 시, 품종 전환으로 약 5~6%의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 표 18-14 ] 육용 종계 품종 전환에 따른 생산성 변화

단위: 개, %, 마리

구분	총 종란수	부화율	병아리 생산
아바에이커(A) (Arbor Acres)	170	80.5	144
코브(B) (Cobb-vantress)	140	75.8	106
증감(A-B)	30	4.7	38

주 1) 총 종란수는 헨하우스 기준임(헨하우스=생산기간 총 산란수/최초 입식 마릿수).  
2) 원종계 생산기간은 40주임.  
자료: 한국육계협회

- (2022년 전망) 2021년 육용 종계 입식은 2020년(729만 마리) 대비 3.7% 감소한 701만 마리였다. 종계 입식 마릿수는 감소하였으나, 품종 전환에 따른 종계 및 육계 생산성 향상으로 2022년 병아리 생산 및 육계 사육은 2021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육용 종계 입식 마릿수를 고려한 2022년 상반기 병아리 생산 잠재력 지수는 2021년 동기간 대비 1.3%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표 18-15 ] 병아리 생산 잠재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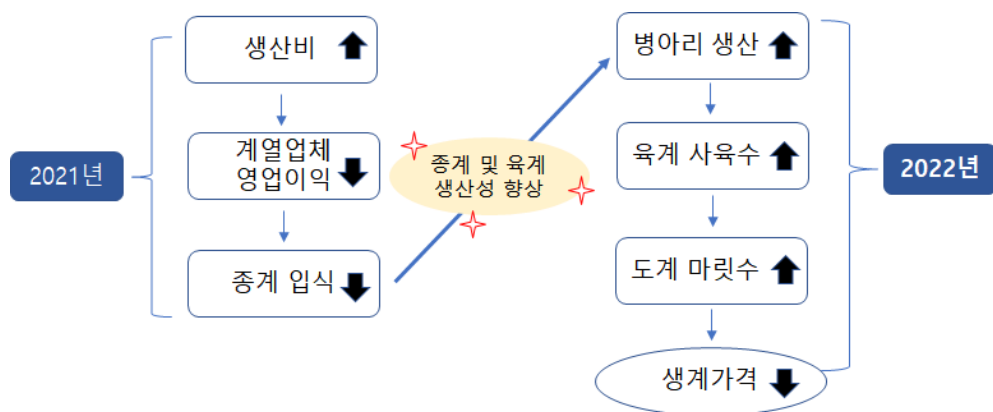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22년	104.1	104.8	107.2	106.9	105.1	105.7
2021년	100.0	104.5	105.7	98.9	108.8	108.6
증감률(%)	4.1	0.3	1.4	8.0	-3.4	-2.7

주: 잠재력 지수는 최근 육용 종계의 생산성을 반영하여 7개월 전 10개월 누적치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2021년 1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을 100으로 함.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높아 2022년 1~6월 도계 마릿수는 2021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계 마릿수 증가로 2022년 상반기 닭고기 공급량은 2021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2022년 상반기 도계 마릿수는 병아리 생산 증가로 육계 사육 마릿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1년 동기 대비 2.7% 많은 5억 1,437만 마리로 전망된다.
- 2022년 상반기 생계유통가격은 닭고기 공급량 증가로 전년 동기(1,360원/kg) 대비 낮은 kg당 1,300원 내외로 전망된다.
- 하반기 육계 사육 마릿수는 2021년 5월 이후 종계 입식 마릿수가 감소하였으나, 생산성 향상으로 전년대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도계 마릿수는 상반기 도계 증가 영향으로 2021년 대비 1.3% 증가한 10억 5천만 마리이며, 국내 닭고기 생산량도 전년 대비 증가한 63만 7천 톤으로 전망된다.

그림 18-21. 2022년 육계 사육 및 생계가격 전망 흐름도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 (장기 전망) 육계 사육 마릿수는 2022년 9,679만 마리에서 2031년 1억 685만 마리로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육용 종계 및 육계 생산성이 향상되며 육계 사육 마릿수는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산비 상승과 생계유통가격 하락 우려는 계열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예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2년 닭고기 수입량(통관 기준)은 국내 생계유통가격 하락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요 수출국에서의 생산 및 컨테이너 운항 차질 등으로 2021년 대비 6.9% 적은 11만 5천 톤으로 전망되며, 이후 닭고기 수입량은 관세 인하와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18-16 ]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구 분	단위	2021년	전망		
			2022년	2026년	2031년
사육 마릿수	만 마리	9,659	9,679	10,201	10,685
생산	천 톤	629	637	662	692
수입	천 톤	124	115	131	155
1인당 소비가능량	kg	14.7	14.5	15.1	15.9
생계유통가격	원/생체kg	1,421	1,372	1,465	1,623

주 1) 1인당 소비가능량은 정육 기준임.

2) 생계유통가격은 명목가격임.

3) 2021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I-KASMO 2021)

## 03

## 오리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3.1. 오리 사육과 오리고기 수급 동향

## 3.1.1. 오리 사육 동향

- 2021년 오리 평균 사육 마릿수는 656만 마리로 전년(868만 마리) 및 평년(876만 마리) 대비 각각 24.4%, 25.2% 감소하였다. 이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오리 농장에서 48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으로 종오리 및 육용오리가 살처분(약 206만 마리)되었기 때문이다.
- 2021년 평균 종오리 사육 마릿수는 60만 4천 마리로 전년(72만 마리) 및 평년(73만 마리) 대비 각각 16.1%, 17.3% 감소하였다.
- 2021년 평균 육용오리 사육 마릿수는 595만 1천 마리로 전년(795만 7천 마리) 및 평년(803만 1천 마리) 대비 각각 25.2%, 25.9% 감소하였다.

[ 표 18-17 ] 오리 사육 마릿수 변화

단위: 천 마리, %

구분	2021년(p)	2020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총 마릿수	6,555	8,676	8,761	-24.4	-25.2
종오리	604	720	730	-16.1	-17.3
육용오리	5,951	7,957	8,031	-25.2	-25.9

주 1) 사육 마릿수는 3월, 6월, 9월, 12월 1일 자 평균이며, 2021년 12월 사육 마릿수는 KREI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2) 평년은 2016~2020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 2021년 9월까지의 오리 평균 사육 가구수는 375호로 전년(529호) 및 평년(547호) 동기 대비 각각 29.1%, 31.5% 감소하였다. 한편, 2021년 가구당 평균 사육 마릿수는 1만 7,496마리로 전년(1만 6,412마리)과 평년(1만 6,027마리) 대비 각각 6.6%, 9.2% 증가하였다.
- 겨울철 사육제한(휴지기제) 시행 및 HPAI 발생에 따른 입식 제한 등으로 총 사육 가구수는 감소하였다.

[ 표 18-18 ] 사육 규모별 가구수 변화

단위: 호, %

구분	2021년	2020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총 가구수	375(100.0)	529(100.0)	547(100.0)	-29.1	-31.5
1만 마리 미만	87(23.2)	114(21.6)	134(24.5)	-24.0	-35.4
1~3만 마리	253(67.5)	382(72.3)	376(68.8)	-33.8	-32.7
3만 마리 이상	35(9.3)	32(6.1)	36(6.7)	8.2	-4.0

주 1) 사육 가구수는 9월 1일까지의 기준 자료임.

2) ( )는 비중임.

3) 평년은 2016~2020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 □ 2021/22년 오리 사육제한 추진 현황

- 오리 사육제한은 HPAI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4개월간 시행되고 있다. 2021년 사육제한(2021.11.~2022. 2.) 참여 가구수는 전년(213호) 대비 증가한 239호이며, 마릿수 또한 전년(333만 마리) 대비 8.1% 증가한 360만 마리로 9월 사육 기준 마릿수의 47.8% 수준이다.

[ 표 18-19 ] 오리 사육제한 추진 현황

단위: 호, 천마리, %

구분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사육제한	비중	사육제한	비중	사육제한	비중	사육제한	비중	사육제한	비중
가구수	260	51.2	203	31.7	207	35.0	213	37.6	239	51.8
마릿수	3,524	50.4	2,997	29.7	3,006	31.0	3,329	35.8	3,600	47.8

주: 비중은 당해년 9월 전국 오리 사육 마릿수 및 가구수 기준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 3.1.2. 오리고기 수급 동향

- 2021년 오리고기 생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2020년 5월~2021년 4월 종오리 입식 마릿수는 HPAI 발생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하였다. 2021년 육용오리 입식 마릿수는 5,148만 마리로 전년(6,866만 마리) 및 평년(6,611만 마리) 대비 각각 25.0%, 22.1% 감소하였다.
- 2021년 총 도압 마릿수는 4,928만 마리로 전년(6,697만 마리) 및 평년(6,639만 마리) 대비 각각 26.4%, 25.8% 감소하였다. 따라서 2021년 오리고기 생산량은 전년(11만 9천 톤) 및 평년(11만 6천 톤)보다 각각 19.7%, 17.9% 감소한 9만 6천 톤이었다.
- 오리가격 상승으로 2021년 오리 수입량은 전년(4,376톤) 및 평년(3,971톤)보다 각각 2.6%, 13.0% 증가한 4,488톤이었다. HPAI로 인한 총 공급량 감소로 2021년 오리고기 1인당 소비가능량은 전년(2.4kg) 및 평년(2.4kg)보다 감소한 1.9kg이었다.

[ 표 18-20 ] 오리고기 수급 동향

단위: 톤, kg, %

구분		2021년(p)	2020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공급	생산	95,584	119,095	116,395	-19.7	-17.9
	수입	4,488	4,376	3,971	2.6	13.0
	계	100,072	123,471	120,366	-19.0	-16.9
1인당 소비가능량		1.93	2.38	2.35	-18.7	-17.7

주 1) 수입은 정육·지육, 열처리 포함.

2) 평년은 2016~2020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이며, 2021년은 KREI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오리협회

### 3.1.3. 오리 산지가격 동향

- 2021년 오리 산지가격은 공급량 감소로 전년(5,603원) 및 평년(6,069원) 대비 각각 78.7%, 65.0% 상승한 생체 3.5kg당 1만 원이었다.
- 2021년 오리 산지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나타낼 정도로 상승하였다. HPAI 발생에 따른 도압 마릿수 감소와 계열업체의 냉동비축물량 급감으로 총 공급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1~4월 오리 평균 산지 가격은 HPAI 발생 및 확산, 사육제한에 따른 도압 마릿수 감소로 전년(4,903원) 및 평년(5,933원) 대비 각각 133.6%, 93.1% 상승한 1만 1,454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 5~6월 평균 오리 산지 가격은 8,190원으로 여전히 전년(5,660원) 및 평년(5,702원) 대비 높았으나, 사육제한이 종료된(3월) 이후 육용 병아리 입식이 원활해지면서 오리고기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4월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 7~8월 평균 오리 산지 가격은 복수요 증가 및 여름철 폭염에 따른 일시적인 육용병아리 생육 저하 등으로 5~6월 대비 상승세를 보였으나, 9~10월에는 복 이후 수요 감소에 따른 소비 부진 등으로 다시 하락세를 보여 8,000원 수준에 머물렀다.
- 11~12월 오리 산지가격은 냉동재고량 감소와 함께 지난해보다 이른 HPAI 발생 및 사육제한 규모 확대 등으로 전월 대비 다시 상승세를 보여 1만 1,000원 선을 유지하였다.

[ 표 18-21 ] 오리고기 냉동 비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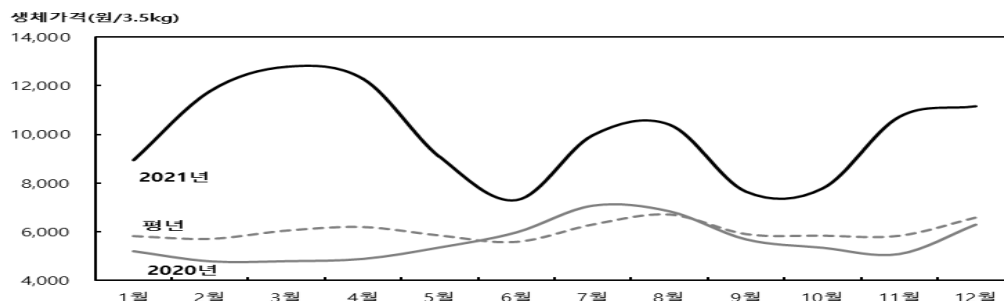
단위: 천 마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1년	4,562	3,726	2,648	2,262	1,662	1,122	444	336	587	807	881	
2020년	5,308	5,640	6,320	6,311	6,294	5,971	5,589	5,423	5,350	5,848	5,581	5,002
평년	3,964	3,958	3,759	3,437	3,198	3,234	2,936	2,817	3,026	3,532	3,555	3,546

주: 냉동재고량 자료는 한국오리협회에 소속된 계열업체의 자료로 전체 냉동재고량의 물량의 70~80% 수준으로 추정됨. 재고량은 매월 마지막 주에 조사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자료: 한국오리협회

그림 18-22. 오리 산지가격 동향



주 1)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2018년 3월부터 오리 산지가격(원/kg)을 발표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이전 자료는 한국오리협회 자료임.

2) 평년은 2016~2020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오리협회

### 3.1.4. 오리고기 소비 패턴

-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2021년 오리고기 소비 빈도는 ‘1~4회’, ‘5~8회’ 순으로 많았다. 한편, 오리고기를 1년 동안 전혀 먹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10%를 초과하였다.

[ 표 18-22 ] 연간 오리고기 소비 빈도

단위: 명, %

구분	0회	1~4회	5~8회	9~12회	12회 이상	합계
가정 내 소비	50(10.1)	324(65.5)	71(14.3)	31(6.3)	19(3.8)	495(100.0)
외식(배달 포함) 소비	77(15.5)	364(73.4)	42(8.5)	7(1.4)	6(1.2)	496(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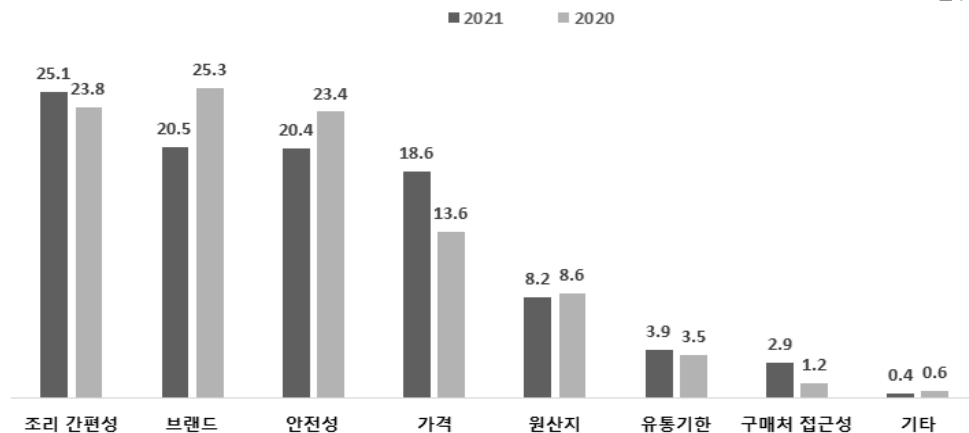
주: ( )는 비중임.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 오리고기 구매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조리 방식의 간편성’(25.1%), ‘브랜드’(20.5%), ‘안전성’(20.4%), ‘가격’(18.6%)순으로 조사되어 2020년보다 ‘조리의 간편성’이 더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조사와 달리 2021년은 오리고기 구매 시 ‘조리의 간편성’이 더욱 증시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유통업체를 통한 구매 증가에 따른 가정 내 소비 변화로 보인다.

그림 18-23. 오리고기 구매 시 고려사항

단위: %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 가정 내에서 주로 먹는 오리고기 메뉴는 ‘훈제오리’(41.1%), ‘오리구이’(31.3%), ‘오리 주물럭’(16.0%) 순으로 높았고, 외식용 메뉴는 ‘오리구이’(31.1%), ‘훈제오리’(26.2%), ‘오리 주물럭’(20.1%)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탕이나, 백숙보다는 조리의 간편성이 높은 훈제오리, 오리구이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18-23 ] 주로 먹는 오리고기 메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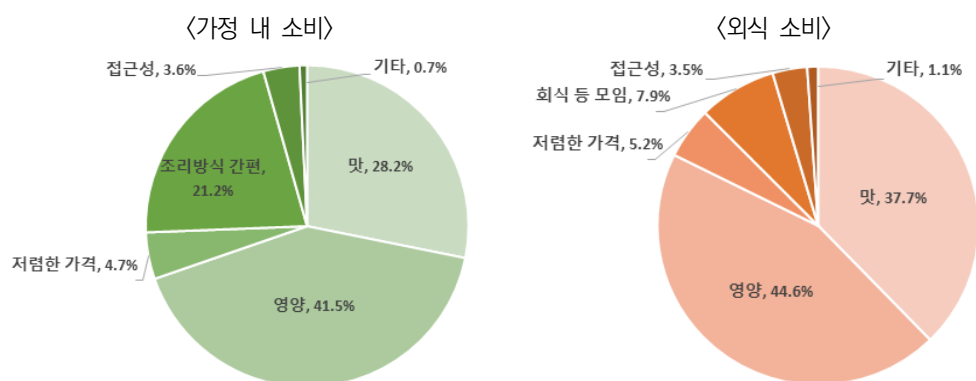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가정 내 소비	외식 소비
훈제오리	41.1	26.2
오리구이(로스 등)	31.3	31.1
오리 주물럭	16.1	20.1
오리백숙	7.5	14.8
탕류(오리탕 등)	3.0	6.3
기타	1.0	1.5
합계	100.0	100.0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 소비자들이 오리고기를 먹는 주된 이유는 ‘영양과 건강을 위해’(가정 내 41.5%, 외식 44.6%), ‘맛이 있어서’(가정 내 28.2%, 외식 37.7%) 순으로 높았다. 오리고기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대부분은 오리고기가 영양이 풍부한 보양식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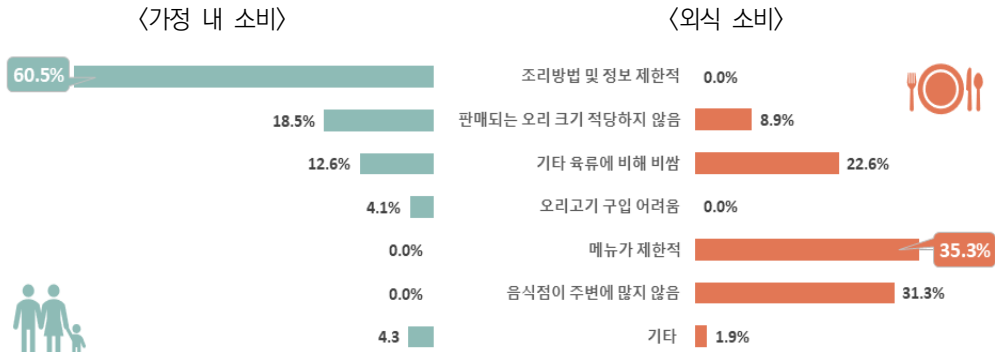
그림 18-24. 오리고기 소비 이유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 오리고기를 소비할 때 불편한 사항으로 가정 내에서는 ‘조리 방법이 다양하지 않고 관련 정보가 제한적’(60.5%)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외식 소비 부분에서는 ‘다른 육류보다 메뉴가 제한적’(35.3%)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주변에 음식점이 많지 않다’(31.3%)라는 답변의 비중도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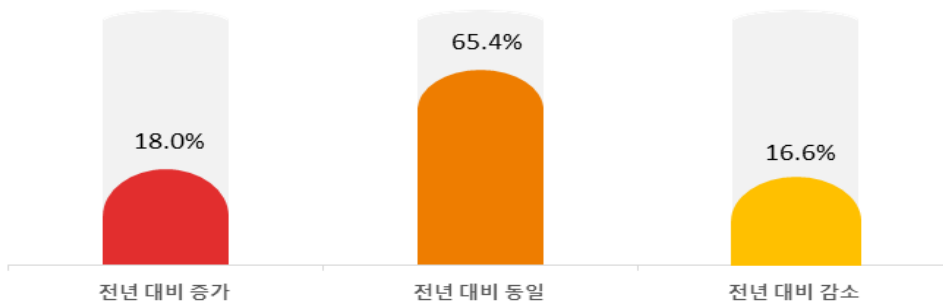
그림 18-25. 오리고기 소비 시 불편 사항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 2022년 오리고기 소비 의향은 2021년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1년보다 소비를 ‘늘리겠다’고 응답한 비중은 18.0%로 ‘줄이겠다’고 응답한 비중(16.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오리고기 소비를 늘리려는 이유는 ‘영양과 건강을 위해서’(39.0%), ‘맛이 있어서’(26.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8-26. 2022년 오리고기 소비 의향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 3.2. 오리 사육과 오리고기 수급 전망

- (2022년 전망) 2022년 평균 오리 사육 마릿수는 HPAI 피해가 컸던 전년(655만 5천 마리) 대비 23.1% 증가한 806만 7천 마리로 전망된다. 이는 평년(802만 4천 마리)보다는 0.5% 증가한 수준이다.
- 2022년 종오리 평균 사육 마릿수는 2021년(60만 마리) 대비 2.2% 증가하나, 평년(71만 마리)보다는 12.6% 감소한 62만 마리로 전망된다.
  - 2021년 종오리 입식 마릿수 증가로 2022년 산란 종오리 마릿수는 2021년 대비 22.2%, 평년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영국 내 HPAI 발생에 따른 조치로 2021년 11월 9일 이후 원종오리 수입이 금지되면서 2022년 종오리 입식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22년 육성 종오리 마릿수는 2021년 대비 40.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2022년 육용오리 평균 사육 마릿수는 산란 종오리 사육 증가로 2021년(595만 1천 마리) 및 평년(731만 9천 마리) 대비 각각 25.2%, 1.8% 증가한 745만 마리로 전망된다.
  - 다만, 육용오리 사육 마릿수는 육성 종오리 사육 마릿수 감소로 4/4분기 이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18-24 ] 종오리 입식 마릿수 추이

단위: 천 마리,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21년	26.7	15.6	67.2	47.6	45.3	59.5	29.0	32.6	30.4	25.4	17.9	30.6	427.6
2020년	19.4	28.4	41.6	29.6	32.5	43.1	35.7	34.7	39.9	26.5	39.9	23.8	394.9
평년	20.2	28.1	37.2	45.9	48.8	43.2	41.6	44.4	45.1	39.6	35.7	29.1	462.2
21/20년	37.5	-45.0	61.4	60.9	39.4	38.1	-18.7	-6.1	-23.8	-4.3	-55.3	28.9	8.3
21/평년	31.9	-44.6	80.6	3.6	-7.2	37.8	-30.1	-26.7	-32.7	-35.9	-50.1	5.1	-7.5

자료: 한국오리협회

- 육용 병아리 생산잠재력 추정 결과, 2022년 상반기 육용오리 병아리 생산잠재력 지수는 2021년 동기간 대비 24.8%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높아 2022년 1~6월 오리 도압 마릿수도 2021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표 18-25 ] 육용오리 병아리 생산잠재력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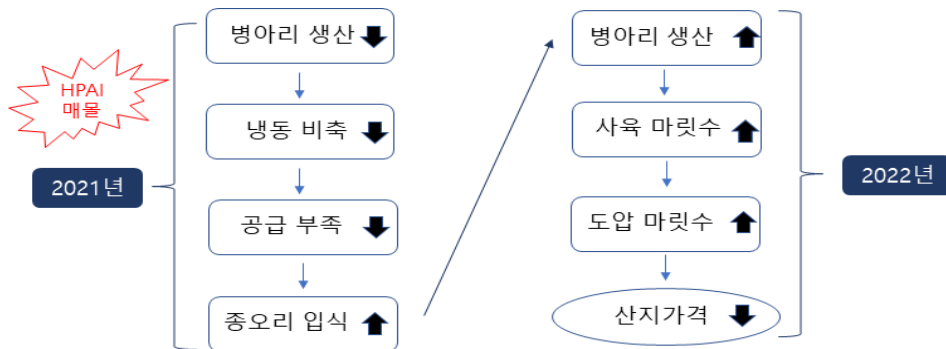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22년	114.4	119.7	119.7	128.6	131.5	127.8
2021년	100.0	93.8	96.5	104.3	100.7	99.2
증감률	14.4	27.6	24.1	23.3	30.6	28.8

주: 잠재력 지수는 산란 종오리 사육 마릿수와 주령별 산란율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월별 육용오리 병아리 입식 마릿수를 지수로 변환한 것이며, 2021년 1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을 100으로 함.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 2022년 오리고기 생산량은 오리 사육 마릿수가 늘어 2021년(9만 6천 톤) 및 평년(10만 9천 톤)보다 각각 19.8%, 5.5% 증가한 11만 5천 톤으로 전망된다.
- 한편, 원종오리 수입 감소에 따른 2022년 종오리 입식 감소의 영향으로 2023년 오리고기 생산량은 2022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8-27. 2022년 오리 사육 및 오리고기 가격 전망 흐름도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 (장기 전망) 오리 사육 마릿수는 2022년 807만 마리에서 2031년 870만 마리로 연평균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HPAI 발생과 생산비 상승 등으로 오리 사육 마릿수는 예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오리 사육 마릿수 증가로 생산량 또한 2022년 11만 5천 톤에서 2031년 11만 8천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오리고기 1인당 소비가능량은 2022년 2.3kg에서 2031년 2.4kg으로 증가세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표 18-26 ] 오리고기 수급 전망

구 분	단위	2021년	전망		
			2022년	2026년	2031년
사육 마릿수	만 마리	656	807	852	870
생산	톤	95,584	114,557	116,159	118,096
수입	톤	4,488	4,432	5,061	6,181
1인당 소비가능량	kg	1.93	2.30	2.36	2.43
산지가격	원/생체3.5kg	10,015	8,299	6,694	7,279

주 1) 수입량은 정육·지육과 열처리 제품의 합임.

2) 2021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21)

## 부록

## 1. 산란계

[ 부표 18-1 ] 산란계 전체 사육 마릿수

단위: 만 마리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00	5,111	5,120	4,878	5,108
2001	4,935	5,069	4,933	4,980
2002	5,047	4,959	5,030	5,019
2003	4,874	4,908	4,938	4,835
2004	4,649	4,806	4,909	5,142
2005	5,137	5,439	5,502	5,339
2006	5,352	5,520	5,539	5,724
2007	5,653	5,654	5,512	5,609
2008	5,785	5,972	5,820	5,917
2009	6,024	6,114	6,200	6,297
2010	6,252	6,159	6,010	6,169
2011	6,103	6,072	6,121	6,241
2012	6,320	6,195	6,133	6,134
2013	5,875	6,193	6,267	6,482
2014	6,457	6,285	6,526	6,767
2015	6,888	6,791	7,209	7,188
2016	7,018	6,828	6,985	7,104
2017	5,161	5,738	6,783	7,271
2018	7,132	6,704	7,123	7,474
2019	7,010	7,141	7,090	7,270
2020	7,281	7,492	7,385	7,258
2021	6,211	6,587	7,072	-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 부표 18-2 ] 산란계 사육 가구수

단위: 호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00	2,883	2,903	2,702	2,601
2001	2,569	2,633	2,476	2,394
2002	2,387	2,433	2,376	2,317
2003	2,653	2,443	2,306	2,129
2004	1,911	2,043	2,075	2,043
2005	2,069	2,314	2,364	2,310
2006	1,863	1,905	1,925	1,934
2007	1,922	1,872	1,841	1,831
2008	1,814	1,714	1,713	1,711
2009	1,750	1,709	1,712	1,687
2010	1,645	1,614	1,538	1,535
2011	1,481	1,465	1,471	1,441
2012	1,418	1,379	1,321	1,295
2013	1,230	1,244	1,217	1,221
2014	1,189	1,123	1,156	1,170
2015	1,165	1,138	1,167	1,149
2016	1,128	1,094	1,061	1,060
2017	869	971	1,098	1,089
2018	1,041	973	982	1,007
2019	981	971	945	963
2020	948	958	945	936
2021	797	897	941	-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제13장

제14장

제15장

제16장

제17장

제18장

[ 부표 18-3 ] 산란계 가구당 사육마릿수

단위: 마리/호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00	17,728	17,636	18,052	19,637
2001	19,209	19,252	19,925	20,802
2002	21,144	20,382	21,170	21,662
2003	18,372	20,090	21,415	22,711
2004	24,329	23,523	23,659	25,168
2005	24,829	23,505	23,273	23,113
2006	28,726	28,976	28,773	29,596
2007	29,410	30,204	29,939	30,635
2008	31,891	34,844	33,975	34,581
2009	34,421	35,777	36,214	37,325
2010	38,009	38,157	39,073	40,190
2011	41,205	41,449	41,613	43,310
2012	44,569	44,926	46,424	47,370
2013	47,761	49,781	51,499	53,091
2014	54,308	55,967	56,456	57,841
2015	59,123	59,672	61,774	62,556
2016	62,214	62,414	65,837	67,022
2017	59,388	59,097	61,779	66,767
2018	68,515	68,903	72,533	74,221
2019	71,461	73,538	75,021	75,494
2020	76,805	78,206	78,151	77,542
2021	77,930	73,435	75,156	-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 부표 18-4 ] 계란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kg

구 분	국내 생산	1인당 소비가능량
2000	478.8	10.2
2001	490.4	10.4
2002	536.6	11.3
2003	503.0	10.5
2004	508.0	10.6
2005	514.9	10.8
2006	537.4	11.2
2007	543.8	11.2
2008	541.9	11.1
2009	579.3	11.8
2010	577.5	11.7
2011	573.1	11.5
2012	604.5	12.1
2013	604.5	12.0
2014	657.4	13.0
2015	657.6	12.9
2016	700.7	13.7
2017	577.1	11.4
2018	646.9	12.6
2019	658.5	12.8
2020	722.3	14.0
2021(p)	650.1	13.2

주: 2021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부표 18-5 ] 계란 가공품 수입통관 실적

단위: 천 달러, 톤

구 분	총수입		조란		난백		난황	
	금액	수입량	금액	수입량	금액	수입량	금액	수입량
2000	3,311	1,468	0	0	1,750	667	1,561	802
2001	5,559	1,930	1	1	2,003	733	3,555	1,196
2002	6,216	1,682	2	1	2,255	465	3,959	1,215
2003	6,682	1,643	0	0	2,607	410	4,075	1,234
2004	6,594	1,674	0	1	2,611	256	3,983	1,418
2005	7,333	2,506	120	61	2,603	401	4,610	2,044
2006	7,423	2,422	222	34	3,049	450	4,152	1,938
2007	9,425	2,270	474	43	4,559	578	4,392	1,649
2008	7,633	1,297	0	0	3,463	356	4,170	941
2009	6,016	1,163	0	0	3,148	338	2,868	825
2010	8,323	1,665	0	0	4,687	568	3,636	1,097
2011	10,270	2,184	2	0	5,339	623	4,928	1,560
2012	10,879	2,224	0	0	5,151	546	5,728	1,677
2013	12,945	1,930	1	0	7,993	704	4,952	1,227
2014	11,868	1,943	104	5	7,940	660	3,824	1,278
2015	10,035	1,240	1	0	8,321	662	1,714	577
2016	13,680	1,809	2,864	407	8,807	865	2,009	537
2017	35,618	15,186	15,673	9,162	9,586	2,358	10,360	3,666
2018	13,633	3,929	177	994	7,043	1,156	6,412	1,779
2019	13,742	3,772	1,100	973	6,986	1,247	5,656	1,552
2020	13,596	3,609	416	54	8,479	2,137	4,702	1,418
2021	116,882	35,778	97,338	30,279	10,520	2,683	9,025	2,817

주: HS-CODE는 조란(0408-99-1000, 0407-21-0000), 난황(0408-11-0000, 0408-19-0000), 난백(3502-11-0000, 3502-19-0000)임.

자료: aT 「농식품수출정보」, 관세청

[ 부표 18-6 ] 계란 산지 및 소비자가격

단위: 원/특란10개

구 분	산지가격	소비자가격
2000	696	872
2001	861	1,047
2002	748	970
2003	762	910
2004	1,064	1,236
2005	1,061	1,471
2006	807	1,266
2007	787	1,290
2008	1,068	1,613
2009	1,175	1,789
2010	1,134	1,720
2011	1,361	2,004
2012	1,133	1,732
2013	1,303	1,797
2014	1,373	1,972
2015	1,253	1,920
2016	1,100	1,831
2017	1,691	2,381
2018	935	1,616
2019	970	1,713
2020	1,106	1,794
2021	1,797	2,317

주: 산지가격은 농협중앙회의 가격 조사 중단으로 2019~21년 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가격임.  
 자료: aT 「농산물 유통정보」, 농협중앙회, 축산물품질평가원

[ 부표 18-7 ] 일평균 계란 생산량

단위: 만 개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00	3,043	2,996	2,889	2,865
2001	2,794	3,021	2,862	2,928
2002	2,938	3,035	3,067	2,967
2003	2,843	3,003	3,049	2,957
2004	2,884	2,968	3,019	2,936
2005	2,972	3,157	3,189	3,105
2006	3,058	3,154	3,249	3,289
2007	3,261	3,296	3,237	3,276
2008	3,250	3,165	3,335	3,396
2009	3,587	3,617	3,689	3,733
2010	3,674	3,648	3,642	3,736
2011	3,669	3,785	3,773	3,725
2012	3,663	3,680	3,761	3,774
2013	3,618	3,824	3,800	3,867
2014	3,888	3,780	3,936	4,029
2015	4,110	4,056	4,289	4,270
2016	4,339	4,199	4,298	4,252
2017	3,145	3,498	3,423	3,901
2018	4,183	4,168	4,423	4,502
2019	4,308	4,435	4,382	4,520
2020	4,487	4,640	4,638	4,683
2021	3,982	4,056	4,329	-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 2. 육계

【부표 18-8】 육계 전체 사육 마릿수

단위: 만 마리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00	4,235	5,991	4,031	4,500
2001	4,336	6,674	4,888	4,566
2002	5,244	7,219	4,712	4,500
2003	4,749	6,676	4,245	4,480
2004	3,649	6,853	4,771	5,012
2005	5,274	8,814	6,583	5,042
2006	6,394	8,428	5,771	5,537
2007	6,335	8,736	5,995	5,623
2008	6,701	7,785	5,555	5,448
2009	6,869	9,998	6,812	6,719
2010	7,269	10,169	7,127	7,787
2011	6,993	11,012	7,104	7,644
2012	6,939	9,775	6,854	7,613
2013	7,194	9,590	6,451	7,649
2014	7,788	10,359	7,585	7,775
2015	8,275	11,049	8,118	8,185
2016	8,654	10,101	7,642	8,783
2017	7,933	10,420	8,055	8,544
2018	9,105	11,268	8,328	8,591
2019	9,360	12,159	8,853	8,874
2020	9,635	11,084	8,820	9,483
2021	9,636	10,972	8,370	-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제13장

제14장

제15장

제16장

제17장

제18장

[ 부표 18-9 ] 닭고기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kg, %

구 분	국내생산	수입	1인당 소비량	자급률
2000	261.5	67.5	7.0	79.9
2001	266.7	84.9	7.4	76.1
2002	291.1	76.0	8.0	79.7
2003	286.5	49.1	7.8	85.9
2004	287.7	48.5	6.6	85.8
2005	300.7	78.3	7.5	79.9
2006	349.3	75.6	8.6	83.8
2007	380.4	60.0	8.6	87.7
2008	376.6	70.1	9.0	86.4
2009	408.5	70.6	9.6	87.1
2010	435.5	105.8	10.7	83.4
2011	456.5	130.9	11.4	80.6
2012	463.7	130.4	11.6	80.0
2013	473.4	126.7	11.5	81.6
2014	527.9	141.4	12.8	81.6
2015	585.3	118.6	13.4	86.6
2016	599.5	102.6	13.8	88.3
2017	564.9	102.8	13.3	85.4
2018	603.3	125.6	14.2	86.0
2019	636.4	140.1	14.8	87.6
2020	642.5	138.5	14.9	88.0
2021(p)	629.0	124.0	14.7	86.9

주: 2021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부표 18-10 ] 닭 도축 및 가격

단위: 만 마리, 원/kg

구 분	도축 마릿수	생계유통가격	소비자가격
2000	39,491	1,060	3,007
2001	44,287	1,250	3,227
2002	49,731	1,016	2,705
2003	49,308	840	2,490
2004	49,971	1,261	3,091
2005	57,709	1,282	3,769
2006	60,856	1,063	3,689
2007	63,773	1,000	3,621
2008	62,617	1,399	4,258
2009	68,016	1,727	5,335
2010	72,528	1,702	5,707
2011	75,961	1,658	6,048
2012	78,795	1,512	5,761
2013	79,152	1,650	5,976
2014	88,551	1,407	5,613
2015	96,696	1,321	5,250
2016	99,252	1,357	5,408
2017	93,602	1,466	5,326
2018	100,482	1,310	4,940
2019	105,999	1,259	5,284
2020	107,018	1,121	5,123
2021	103,504	1,421	5,462

주: 2017년 이전 생계유통가격은 농협중앙회 산지가격을 토대로 환산한 자료임.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제13장

제14장

제15장

제16장

제17장

제18장

## 3. 오리

[ 부표 18-11 ] 오리 전체 사육 마릿수

단위: 천 마리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1	-	15,223	12,925	12,735
2012	13,092	12,603	12,611	11,161
2013	11,207	13,287	12,246	10,899
2014	6,577	6,089	8,197	7,539
2015	7,681	10,798	10,466	9,772
2016	9,511	10,705	8,770	8,109
2017	5,570	6,460	6,987	7,530
2018	5,470	10,488	10,086	8,997
2019	7,243	10,215	9,694	8,637
2020	8,187	9,303	9,286	7,929
2021	3,919	7,528	7,530	-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 부표 18-12 ] 오리 사육 가구수

단위: 호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1	-	1,065	960	981
2012	955	963	984	852
2013	845	979	929	866
2014	515	549	693	605
2015	581	772	771	722
2016	685	753	639	566
2017	390	469	508	497
2018	360	624	640	527
2019	449	606	591	486
2020	493	527	566	449
2021	235	428	461	-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 부표 18-13 ] 오리 가구당 사육 마릿수

단위: 마리/호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1	-	14,294	13,463	12,982
2012	13,709	13,087	12,817	13,100
2013	13,263	13,572	13,182	12,585
2014	12,772	11,090	11,828	12,462
2015	13,220	13,987	13,575	13,534
2016	13,885	14,217	13,724	14,327
2017	14,281	13,774	13,753	15,152
2018	15,194	16,807	15,759	17,071
2019	16,131	16,856	16,403	17,772
2020	16,607	17,652	16,406	17,659
2021	16,675	17,588	16,335	-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 부표 18-14 ] 오리 수급 동향

단위: 톤, kg

구 분	국내 생산	수입	수출	1인당 소비가능량
2011	154,514	4,305	20	3.1
2012	169,568	3,662	0	3.4
2013	158,303	3,194	297	3.2
2014	106,450	2,921	0	2.1
2015	118,328	3,122	0	2.4
2016	118,898	3,379	0	2.4
2017	89,417	3,461	0	1.8
2018	113,695	4,075	0	2.3
2019	116,591	5,906	0	2.4
2020	119,095	4,376	0	2.4
2021(p)	95,584	4,488	0	1.9

주: 2021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오리협회

제13장

제14장

제15장

제16장

제17장

제18장

[ 부표 18-15 ] 오리 도압 및 산지 가격

단위: 천 마리, 원/3.5kg

구 분	도압 마릿수	산지가격
2000	26,637	4,733
2001	30,866	5,020
2002	37,695	4,634
2003	30,889	4,704
2004	29,230	4,995
2005	20,717	6,038
2006	30,560	6,473
2007	42,187	5,787
2008	48,414	6,335
2009	54,471	7,644
2010	74,834	8,463
2011	85,529	8,789
2012	90,409	6,739
2013	85,382	7,349
2014	51,020	9,303
2015	71,056	7,887
2016	71,445	5,971
2017	46,101	9,091
2018	67,476	7,311
2019	69,619	5,177
2020	66,970	5,603
2021	49,280	10,015

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2018년 3월부터 오리 산지가격(원/kg)을 발표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이전 자료는 한국오리협회 자료임.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오리협회